



불교충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6년
2017년 12월 1일
음 10월 14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 (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1년 제217호

대구 개천사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 봉행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 교도 동참



불교충지중 대구 개천사(주교 우인 정사)가 득락전 가지불사를 봉행했다. 11월

21일 오후 1시, 득락전 아미타불 삼존불을 봉안하고 제막했다. 이날 가지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 인선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먼저 효강 종령 예하와 인선 통리원장, 우인 개천사 주교, 김옥희 신정회장, 김장석 각자 등이 득락전 제막식의 테이프를 당겼다.

대구-경북교구장 안성 정사(수인사 주교)의 집공과 법상 정사(건화사 주교)의 사화로 봉행된 법회는 개천사 신정회 육법공양단을 시작으로 효강 종령 예하, 인선 통리원장, 우인 개천사 주교의 헌화와 훈향으로 이어졌다. 불공은 37 의례로 득락전 봉안원만과 개천사 교화발전을 서원했다.

이어 서원당 입구에 조성된 득락전에는 아미타삼존불을 모시는 봉안불사가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비밀의례로 봉행

됐다.

개천사 한영란 보살은 발원문에서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개천사 득락전에 법석을 마련하여 아미타 삼존불과 원불을 모신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오늘 득락전 봉안가지불사에서 일체만물이 대성취의 연꽃향을 맡게 하시고, 무명중생이 제법 실상의 일체지를 증득케 하옵소서”하며 득락전 아미타불 봉안으로 많은 인연 중생들이 모이기를 서원했다.

효강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오늘, 승단의 스승과 교도 대중이 다 함께 득락전 봉안 가지 불사를 올리고 서원 하오니, 이 개천사가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어렵고 힘든 중생 구제의 전당이 되기를 서원 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의 원천이 되게 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간절히 서

원합니다”며 개천사의 교화 발전과 종조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받들어 대구 교화의 중심 사원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서원했다. 이어 우인 개천사 주교는 “이번 득락전 봉안은 올해 새해불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봉안 논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김장석 각자님의 인연공덕과 모든 개천사 교도들의 원력으로 이룬 큰 불사였습니다. 득락전에 모신 서방 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중생들의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며 득락전 봉안 인연과 부처님의 가피가 대중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드렸다.

개천사 김옥희 신정회장은 “오늘 득락전 봉안가지불사는 오직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과 승단스승님과 교도들의 대비서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며 “이번 불사를 통해 개천사 교도들은 대자대비

심을 일으켜 더욱 큰 서원을 세우며 용맹정진해 나가겠습니다”며 이번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대중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증만하기를 서원했다.

이번 불사에 큰 서원을 발하신 김장석 각자는 “선망 부모와 누이들을 한자리에 모신 득락전 봉안을 허락해 주신 총지중 개천사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많은 교도들의 발원이 함께 어우러져 위대한 불사를 회향하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늘 간직할 작은 바램이 오늘의 큰 서원으로 불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며 감격해 했다.

본 법회는 감사패 증정과 대구-경북 금강합창단의 축하를 끝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대구 개천사=김종열 기자

총지중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 개교 50주년 기념식 거행

디지털 역사관, 연혁실 개관 및 동해 50년사 출간 기념회도 열려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를 이어온 동해중학교는 이날 디지털 역사관 및 연혁실 개관 및 동해 50년사 출간기념회를 겸해 열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동해중학교 본관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역사관은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 탁상달 동해중학교 교장 등이 제막에 동참했다. 이 시설은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동해중학교의 모든 역사, 사진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첨단 아카이브 시스템이다.

이어 오전 11시 해오름관에서 열린 50주년 개교 기념식 및 동해50년사 출간기념회가 열렸다.

50주년 기념식에는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 중앙총의회 의장 수현 정사,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 정사,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를 비롯한 부산경남 교구 스승, 황의중 초대 교장, 김진도 총동창회장, 백중현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 이진수 부산 시의회 환경위원장, 백명숙 부산 청소년 단체협의회 회장, 이경옥 동래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진완 금정중학교 교장 등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장 20여명의 인사들과 전국의 졸업생 및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들이 동참했다.

기념식에서 먼저 10년 근속 교직원인 교사 오영주, 교사 오경식, 교사 최성봉, 교사 견정인, 서기보 박제갑에 대한 감사패

및 격려금 전달을 이사장 인선 정사와 김진도 동창회장이 수여했다. 이어 졸업생 및 교육가족 감사패를 졸업생 1회 정관호, 3회 김진도, 9회 정태진, 16회 이진수, 교육가족 공병선, 박상영, 백진호, 박정민, 황보중수님에게 탁상달 교장이 수여했다.

총지중 인선 통리원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직능적 질서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상호 연대적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 연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

로부터 자신의 삶에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러한 은혜를 갚는 길은 자신도 남에게 베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들이 동참한 50주년 기념 떡절단식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참석자들은 기념 오찬을 함께 했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총기 46년 창교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의례와 수법을 정립한 생활밀교종단 총지중은 총기46년 창교절을 맞아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일시 총기 46년 12월 24일(일)

● 장소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충지중 통리원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

‘자비와 지혜’ 세상에 펼치길 서원



▲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설정 스님은 수행가풍과 승풍진작으로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고, 전 인류가 행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을 밝힐 것을 천명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 부회장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정세균 국회의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인사 및 사부대중 1만 5,000여 명이 동참했다.

신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제35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게 되니 개인의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우리민족과 운명을 함께하며, 고통을 겪을 때는 화쟁의 통합원리를 제공했고 외침을 받아 국가가 위태롭게 되면 떨치고 일어나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행가풍과 승풍진작 △교구

중심제 강화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 쇄신 △종무행정 시스템 개선 및 종단재정 안정화 △전통문화에 대한 획기적 국가정책 수립 △승려복지시스템 확대 △승려교육 체계화 및 전문 인재 양성 △포교정책의 다각화·내실화 △한국불교 세계화 △종단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신뢰 제고 등 10대 기조를 제시했다.

또한 “수행가풍과 승풍을 진작해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고,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신뢰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며 “종교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님들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국 사찰은 이웃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가꾸는 공동체 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설정 스님은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선맥을 이어받아 평생을 수행에 전념하신 선승이시며,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며 불교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이사회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파사현정, 못 생명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비행’의 불교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봉행

서울계단 123명·대구계단 138명 진언행자 탄생

진각종은 11월 13일 탐주심인당(서울시 성북구)과 14일 회락심인당(대구시 중구)에 삼매야계단을 개설하고 진기 71(2017)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탐주심인당에서 봉행된 수계관정 불사에는 최중수(승공탐주심인당) 각자 등 123명의 수계자들이, 회락심인당에서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는 최용태(연호·시경심인당) 등 138명의 수계자들이 보살십선계를 수지했다.

오후 1시 습의불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삼매야계단 수계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갈마아사리 덕일 정사로 부터 금강선(金剛線)을, 전계아사리 회정

총인으로부터 금강수(金剛水)를, 교수아사리 회성 정사로부터 계철(戒鐵)을 받고 십선계를 지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갈마아사리 덕일 정사는 설계단문을 통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믿음을 일으키는 자 반드시 먼저 계를 가지지 않으면 일체의 선한 공덕을 얻지 못하며 청정한 계로서 몸과 마음을 지키면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설하셨다”며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 모든 진언행자들이 환화하여 계를 받아 이를 복전으로 삼고 무량한 공덕 받기를 원하나이다”고 발원했다.

교수아사리 회성 정사는 설창계를 통해 “오늘 진언행자에게 내리는 계는 십선

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니, 십선이란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뜻으로 세 가지 착한 일을 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며 “진언행자들인 이제 마땅히 계를 한번 수지하면 영원히 잃지 않고, 몸은 비록 없어지더라도 계체는 잃지 않겠다고 서심 결정한 마음을 일으켜 청정계의 뜻을 발할지니라”고 전했다.

전계아사리 회정 총인예하는 법어를 통해 “진언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정계를 받으니 계행은 능히 보리의 근본을 열도다. 금세에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 항상 선지식의 친근함을 얻어 부처님과 법과 그 스승을 깊이 믿으니 능히 모든 공덕 구축하리다”고 설했다.

‘깨달음 논쟁’ 시리즈 연찬 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 주최, 동국대 혜화관에서

불교학 연구회 주최 2017년도 ‘깨달음 논쟁’ 시리즈 연찬 학술대회가 11월 11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있었다. 이날 연찬 학술 대회는 인도, 중국, 티벳 불교의 깨달음 논쟁 2로 최중남 불교학 연구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월암 스님의 기초강연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인 김한상 동국대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제가자의 깨달음에 대한 재고”를 발표했고 김성철 금강대학교 교수는 “유가행파의 해탈적 인식” 이병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천태에서 바라본 깨달음 논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각각 120분의 발표와 논평,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김성철 발표자는 “『대승장엄경론』에서 말하는 해탈적 인식은 신비주의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합리주의적 측면을 조화롭게 융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논평자로 나선 남수영(동국대학교)교수는 “해탈의 성취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된다”며 “석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4선을 닦아 제4선에서 4제를 인식함으로써 해탈하는 것 과 오온을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자아가 아닌 것으로 관찰하여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사선과 사무색정이라는 선정의 심화과정을 거쳐 멸진정이라는 상태에 도달하여 열반에 머



▲ ‘깨달음 논쟁’ 시리즈 연찬 학술대회

무는 것이다.”라며 논평의 서두를 열었다. 차상엽(금강대학교)교수는 2차 논평자로 나섰고 정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청중 질의시간에는 ‘신비주의와 합리주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서양인식론을 근간으로 한 표현법이다.

불교 전통적 표현법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과 ‘해탈적 인식과 깨달음에 대한 용어의 의미와 구분된 사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질문에 관한 발표자의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깨달음 논쟁 2차 학술대회는 18시에 폐회되었다. 불교학 연구회는 12월 9일 깨달음의 논쟁3 연찬 학술 대회를 동국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각국사 916주기 열반 다례재 봉행

단양 구인사 역대조사전서

천태종은 11월 22일 단양 구인사 천태종 역대조사전에서 ‘의천 대각국사 916주기 열반 다례재’를 봉행했다.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의 열반 916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는 다례제가 단양 구인사에서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역대조사전에서 ‘의천 대각국사 916주기 열반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는 도용 중정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준광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대종

스님들과 이준원 금강대 총장,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례제는 도용 중정예하의 헌향·헌다·헌화, 총무원장 준광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의 헌향·헌화, 종의회의원 및 내빈 헌향·헌화에 이어 부전스님들의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의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천태종의 밝고 미묘한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에서 비롯되어 중국 천태지자 대사의 해명으로 중지를 세웠고, 고려 의천

대각국사의 성지(聖志)로써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며 “이후 역사의 질곡에 묻혀 500여 년 인물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 밝고 영롱한 중지는 사라지지 않아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광활한 원력에 의해 다시 창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2005년부터 매년 구인사와 영통사에서 합동으로 ‘대각국사 의천 열반 다례제’를 봉행했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지난해부터는 단양 구인사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 천 사	전 세 형	11/6	30,000
관 성 사	황 성 녀	11/9	10,000
	김 병 석	11/13	10,000
	인 선	11/20	20,000
기로스승	해 정	10/25	10,000
	원 봉	11/6	10,000
	지 선 행	11/6	10,000
	원 봉	11/14	10,000
	지 선 행	11/14	10,000
	상 지 화	11/20	10,000
	수 증 원	11/20	10,000
	밀 공 정	11/20	10,000
	총 지 화	11/20	10,000
	법 수 원	11/20	10,000
	선 도 원	11/20	10,000
	법 지 원	11/20	10,000

	일 성 혜	11/20	10,000
	불 멸 심	11/20	10,000
	사 홍 화	11/20	10,000
	안 주 화	11/20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11/1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10/31	5,000
법 황 사	박 미 경	11/20	10,000
벽 룡 사	양 정 현	10/30	20,000
	양 지 현	10/30	20,000
	권 형 민	10/30	20,000
삼 밀 사	신 막 심	11/10	10,000
수 인 사	정 순 득	11/15	10,000
실 지 사	조 성 우	11/1	10,000
	정 경 자	11/13	10,000
	박 병 성	11/13	20,000

일원어린이집			
	김 용 미	10/25	10,000
	하 재 회	10/25	50,000
	구 미 자	10/31	10,000
정 각 사	안 한 수	11/12	10,000
지 인 사	허 성 동	10/24	30,000
	승 효 제	11/6	10,000
	승 효 제	11/14	10,000
	허 성 동	11/16	3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10/25	30,000
총 지 사	무 명 씨	11/13	50,000
	박 정 희	11/14	10,000
	신 용 도	11/14	10,000
	손 경 옥	11/15	10,000
혜 정 사	최 영 례	11/20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10/31	10,000
	무 명 씨	11/4	20,000
	강 승 훈	11/10	5,000
	강 승 민	11/10	5,000
	최 영 미	11/10	50,000
흥 국 사	지 정	11/6	20,000
	지 정	11/14	20,000
사원명무기명			
	박 필 남	11/15	10,000
	김 갑 선	11/20	10,000
	이 학 열	11/20	10,000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포항 지진으로 수인사, 선림사 대규모 피해

포항시 전체 19일까지 500억원의 재산피해



▲ 수인사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에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은 포항 북구 일대를 이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진양과 가까운 흥해읍 선림사는 직격탄을 맞았고, 북구 덕산동에 있는 수인사도 지붕 기와와 처마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었고, 내부 기가재가 전부 쏠리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흥해읍 한동로 79-8번지에 위치한 선림사(주교 혜음)는 진양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진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

다. 선림사 서원당과 요사동의 지붕 및 창틀이 모두 비틀어졌고, 벽체에 금이 가 건물 안전성마저 위협한 상태이다.

수인사(주교 안성)는 서원당 지붕처마와 기와 대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부의 집기들이 쏠려 피해를 입었으나 2007년도 준공한 신축 건물이라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선 통리원장과 집행부는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건물안전 진단



▲ 선림사

을 시급히 지시하고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또한 피해지역 불자들과 시민들의 심신안정과 빠른 복구를 서원하며 종단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지역 교도들의 피해가 속속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수인사 수인회는 지진 피해를 입은 가운데에도 더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그 외 경북교구 사원들의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총지중 사원 뿐만 아니라 포항시내 및 경주 등 인근지역 전통 사찰과 문화재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은 16일 포항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문화재 안전 상태를 점검해 국가지정문화재 10건과 시도지정문화재 10건, 문화재자료 3건에서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제1868호)에서는 불단 아래쪽의 박석이 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원=김병구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장려상 수상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경연대회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지휘자상은 추현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지휘자가 선정됐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박화자)은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경연대회를 11월 14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불교총지중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관음사 화희합창단 등 11개 팀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등 내빈들이 축하하고 격려했다. 2부는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을 시작으로 각 합창단들이 자유곡 1곡과 지정곡 1곡으로 경연을 이어갔다. 이날 대상은 흥법사 불광합창단, 금상은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단, 장려상은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이 수상

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지휘자상은 미룡사 추현철 바라밀합창단 지휘자가 받았다. 앞으로 추현철 지휘자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을 이끌 예정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불교총지중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아름다운 찬불가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더 열심히 매진하여 불범홍포와 진언밀교 교화에 앞장 서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과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 총지중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총지중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 및 부산 경남교구 스승을 비롯해 각 사찰 주지 스님, 백종현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사부대중들이 동참했다.

진주 화음사 이재호 각자

‘2017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표장 수상



▲ 이재호 각자

진주 화음사에 경사가 났다. 신정회장 강순란 보살의 부군 이재호 각자(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회장)가 지난 8일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개최되는 ‘2017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가 ‘국민 표장’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매년 그간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온 전국 바르게살기운동 회

원님들의 사기와 사명감을 높여 주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을 발굴하여 실적검증과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상을 하고 있다.

이재호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에 첫발을 닦아 현재까지 15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범접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이웃사랑실천운동전개, 안전문화 확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국민인식을 선진화 하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돕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화음사 강순란 신정회장은 “각자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솔선 수범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큰 영광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원만회향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통신원=황보정미

총지중 본존 육자진언 의장등록 출원

옴마니반메훔 범서 디자인등록 마무리

불교총지중은 10월 24일 특허청으로부터 범서 육자진언을 디자인 등록 신청하여 3개월의 심사 끝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거 앞으로 유사 범서로부터 침해 없이 보호 받게 되었다. 본 디자인은 1971년 불교총지중을 창종개창 하면서 본존으로 모셔 오던 육자진언으로 원정 대성사의 친필 범서본이다. 최근 불교용품, 장례품목 및 악세사리 용품으로 범서가 인기를 끌면서 불교총지중 본존 범서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용을 막음으로 총지중 창종의 뜻을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되었다. 이로써 본존에 대한 모든 디자인 권리

는 종단이 소유하게 되었다.

디자인 등록된 육자진언은 총지중 모든 사원에서 본존으로 모시고 있으며 관세음보살님의 깊고도 깊은 본심의 여섯 글자로 된 진언중의 으뜸 진언이다. 총지중에서는 “옴마니반메훔”을 수행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육자진언 디자인 등록으로 육합상과 좌중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교정부는 앞으로 종단 디자인과 문양 등을 발굴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여 종단의 지적 재산권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밀행사 교도 신준철 각자

대한노인회 밀양시 지회장 취임



▲ 신준철 각자

지난 13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총회에서 각 부 선거인단 383명이 투표에 참가해 2위와

압도적인 표차로 밀행사 교도 신준철 각자가 제 7대 대한노인회 밀양시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7일 밀양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밀양시 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30여년간 밀양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사기관으로 퇴직 후에도 밀양 노인대학장, 잠원재 김중직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도 참여하였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지역사회의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에서 사무국장과 부지회장을 역임하였다.

신준철 각자는 당선 소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여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교총지중 불교용품



가정다라니



가정다라니(액자)



가정본존(순금)



가정본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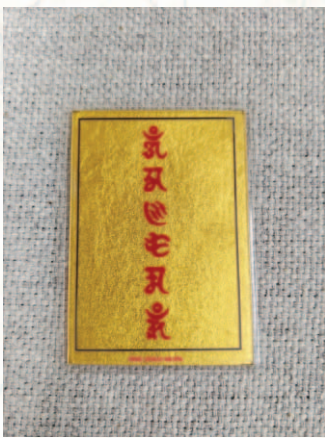
편백 108염주



진보리수 108염주



차량용 스티커



금박 호신다라니

구입 문의 : 02-552-1080



불교총지중 통리원 사회부

지상 설법

복문 열어 가난 해탈

화음사 법수연 전수

“

가난 해탈법(종조법설집 p.158)

(1)나의재물 남을주면 주는그때 줄었지만 도로돌아 불어옴은 우주자연 법칙이요,

남의재물 도착하면 가져올 때 있었지만 도로가고 가난함도 우주자연 법칙이라.

(2)주지않는 남의재물 취득함이 도적이니 빌려와서 안갠것 이것이곤 도적이요, 외상쓰고 안갠것 이것이곤 도적이라.

(3)가난해탈 하려거든 언제든지 수입할때 갚을것을 먼저주고 내가쓸것 뒤에쓰라. 안갠으면 도적이라 가난됨을 뉘가알라.

(4)불공만배 첫째하고 공과기타 갚은후에 저축하고 쓰는것이 큰시주라 가난없고

전생에서 비록복을 짓지않고 왔드라도 이와같이 실행하여 습성되어 가풍되고 부자서로 이어가면 재보무량 하게된다.

”

불잡을 수도 없는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회향일이면서 업통장 정리하는 날 입니다. 어느 자녀들이 얼마나 보내 왔는가 통장을 확인하시죠? 그러나 업통장 정리는 아마도 우리 총지종 교도들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월초불공 회향일은 선업통장 악업통장 정리해보는 날이니까요. 은행통장을 정리 했을 때 잔고가 적으면 과소비했음을 반성하고 다음 달 계획을 잘 세워야겠지요.

우리 불공도 '야' 힘들었다. 불공 끝났다'가 아니라 이번 불공을 하면서 다음 달 것을 설계 해야겠지요. 혹여 다음 달 까지 가기 바쁜 분들은 바로 내일 부터라도 숙제풀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또한 월초불공 기간에 그간 자신이 불공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을 해 보면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광산? 맹산? 잘 판단하셔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무조건 염주만 쥐고 불공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불공은 어디까지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밝혀진 길을 가는 행은 결국 자신이 해야지요. 몸의 적신호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문진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음식, 가족 중에 혹시...' 우리 불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님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대화가 필수이지요. 현실적으로 가족력을 문듯이 우리도 주위의 환경조건과

때로는 조상들의 유전인자 즉 조상의 업력으로 한몫을 합니다. '교도들의 외갓댁 근본까지 알아야 된다'는 종조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일겁니다. 진리와 현실은 하나이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잘 살기위해 선택한 종교생활이 된다면 불편하고 현실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불공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본인의 근기에 맞추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난이라면 누구라도 물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하나 더 마음가난도 같이 공부 해 봅시다. 종조님께서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세속 사람들은 남의 것 내게 오면 오는 만큼 다 쌓이는 줄로 알지만 '도로 돌아돌아 감이 우주자연 법칙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한 톨의 곡식을 먹고 싶은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땅에 심는다면 적절한 시간이 흐른 뒤 분명히 많은 양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인생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전을 보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자연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도 지(地)수(水)화(火)풍(風)의 기운을 빌어 태어났건만 영원한 나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가난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되면 '전생에 내가 거지근성으로 항상 바라고 남의 것 탐내고 살았구나, 아니 살았다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탐나는 마음 일어나면 절량 한 숟가락이라도 회상하고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어디서라도 받으려는 마음보다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고 참회가 동반되어야겠지요.

그러면 당장은 자신이 평강히 부자 된 느낌이 들고 마음이 편할 겁니다. 다음 생은 이 생에서 배운 만큼 부하게 살겠죠. 이것이 삼세과를 알고 삼세과를 다스리는 불공법입니다.

마음 가난도 대입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외롭고 뭔가 부족하다면 전생에 나만 생각하고 주위를 보살피지 않고 살았음을 간파하여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진리적으로 참회하면 숙제가 해결 됩니다.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가 갈증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왜 일까요? 우울증은 바로 마음 가난이 원인이지요. 실지로 외롭다는 말을 연발하며 힘들어 우울증 약을 드시던 분이 입교해서 마음 다스리며 불공하여 약을 중단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으로 바꾼 결과 입니다. 주지 않는 남의 재물... 이 대목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마음을 적용시켜 보면 가족 간 에도 서로 누구를 더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계산하여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사랑을 취득하려는 도둑심보가 아닐까

싶네요.

어릴 적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빌려옴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성인이 되어서는 극진히 효순함이 갚는 행이 될 겁니다. 외상 쓰고 안 갚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평생은 물론이고 자손대대로 가난해야 할 가난의 씨앗을 유산으로 남기는 이치이지요. 외상주고 못 받는 가게 주인의 애타는 기운이 이자 붙어 본인에게 가기 때문이지요.

현 시대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재물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불상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 투기 비자금 등 부정적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 비재 하잖아요. 물질도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복되게 쓰면 복의 씨앗을 뿌리는 원리가 되지요.

각자의 복 그릇에 담길 양이 넘치면 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 그릇 키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평소에 부처님 전에 회상하는 것은 이 법을 만나기 전에 화로 나가던 것을 먼저 회사로 복되게 내 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공과 실천 방법들이 있는데 교도님들께서는 잘 취사선택하여 정말 생활불교가 이런 것 이구나의 진가를 느껴 보십시오. 복문을 열어 물질 가난해탈과 더불어 지족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난 해탈하여 행복한 불자가 됩시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선업의 유산을 많이 남겨 자자손손이 행복하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진정한 적폐(積幣) 청산을 하려면...

“과거 평가, 현재 관점에 매몰되지 않아야”
“근본적 적폐 해소 위해 자기 마음 맑혀야”

'적폐청산'은 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자된 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지난해 말 촛불시위로 붓물처럼 쏟아진 것을 시작으로 올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을 이끌어 냈고, 지금은 적폐청산이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에 대한 시각은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다. 적폐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와 청산 방식에 대한 이견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H. 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했다.

역사란 지나간 과거의 움직임 수 없는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역동적인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카의 역사 해석은 사건들과 상황들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한 것이다. 현재의 입장이나 관점이 달라지면 과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문제는 당대의 관점에 따라 역사에 대한 창조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역사관도 보편적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던가. 당대의 권력자는 자신이 가진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는 유혹에 늘 노출된다. 역사가 편의대로 재단될 때 진실과는 더 멀어진다.

그러므로 권력자는 늘 자신의 기준이 보편타당한지 늘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면 사회의 화합과 안정이 저해될 수 있고, 나라 전체가 과거에 얽매어 미래 발전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은 위안부 관련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 정부는 TF를 구성해 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 신뢰가 중요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 궁급하다.

선불교에는 수처각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가르침이 있다.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될 때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말씀이다. 그러한 자유자재한 삶은 맑은 거울과도 같은 자신의 본래 깨끗한 마음, 즉 자성정정심(自性淸淨心)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금강경>의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의 가르침과도 맥락이 통한다. 익숙한 관념에 안주하지 않을 때 늘 새로워질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진실을 외면하기 쉽다.

불교는 자기를 깨끗이 할 때 세상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의 가르침도 준다.

칠불통계(七佛通戒)에도 자기마음을 맑히는 '자정기의(自淨其意)'가 있다. 외면에 앞서 내면의 적폐청산이 우선적이며, 내면의 적폐를 해소해 나갈 때 진정한 적폐청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김봉래 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환당 대중사 법어록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정도를

바른 불교를 널리 알리려 애쓰신
불교총지종 환당 대중사님의 법어집!

이루기를 서원하기 보다 버리기를 서원하라!
가장 잘 닦은 사람은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다.

구입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9

밀교의 삼밀 가운데 구밀(口密)은 소리를 통해서 부처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부처에게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 구밀에 해당하는 것을 달리 진언 혹은 다라니라고 한다.

진언(mantra) 또는 다라니(Dharana)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을 언어나 문자로써 표현하고자 하여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진언이나 다라니를 통해서 무명을 타파하고 진리에 다가갈게 하기 때문에 밝은 세계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말이라고 하여, 이것을 명(明) 또는 명주(明呪)라고도 하고 한다.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mantra)이다. 진언은 인도 고대의 베다(Veda)의 신들에 대한 찬가와 신들에 대한 주술적인 주문에서 유래하였다. 만트라라는 사념한다는 뜻의 어근 man과 ‘답는 그릇’의 뜻인 -tra의 합성어이며, 인도 고대의 종교에서 만트라가 신에 대한 종교

의례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신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진실한 언어’ 또는 ‘사념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 등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신성한 문자 또는 언어를 의미한다.

인도 고대의 만트라라는 베다 문헌에서 신들에 대한 종교적 의례와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위한 주술적인 기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주呪(呪), 신주(神呪) 또는 주문으로 호칭한다. 이 주문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초기불교나 부파불교 시대에는 지혜와 연관을 갖는 명(Vidya)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또한 그 자체에 신의 신비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呪의 기능과 함께 지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명주(明呪)라고 한역되기도 하였다.

그 후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서 다라니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로 다라니(dharani)라고 하며 지(持),총지(總持)라고 한역된다.

대승장엄보왕경

『관음신앙과 다라니』

다라니는 dh(보존하다)에 접미사 -ana가 붙어서 이루어진 Dharana의 여성명사형이다. 이 Dharana는 유가행의 수행법과 관련하여 정신의 동요를 막고 정신을 통일하여 마음을 하나의 집중된 상태로 지속하여 유지 하는 것으로 집지(執持)라 한다. 그리하여 Dharana는 정신을 통일 하고 그 상태를 지속하여 유지하는 집지로써 불설이나 경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문지(聞持) 또는 억지(憶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총지의 의미는 ‘교법을 억지하는 정신상태’, ‘교법을 억지하는 정신적 능력’ 또는 ‘불지의 총합’을 뜻한다.

경전의 암기와 기억이 구전을 통해 전해졌던 『아함경』과 달리 대승경전에 있어서는 경전의 양이 방대하게 되면서 억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의 명주(明呪)의 기능이 초기 대승불교 경전인 『반야경』에

서는 다라니가 지닌 문자나 억지의 기능을 중시하여 다라니의 지송이 보살의 중요한 수행덕목이 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를 잘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자의 다라니 와, 잊지 않고 지닌다는 의미인 억지의 다라니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이러한 상태를 굳게 유지한다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자나 억지의 기능을 갖춘 다라니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들의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지혜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라니가 대승보살의 수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다라니 수행이 반야바라밀 등의 반야보살의 핵심적인 수행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총지종 예의범절

성도합시다

백룡사 주교 법일



미국은 ‘hello’, ‘how do you do?’라는 말과 함께 친한 사이인 경우 가벼운 포옹과 키스를 하고, 하와이는 양 볼을 서로 비비면서 ‘알로하~’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타인을 만났을 때 양쪽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한다. 또한 미남, 미녀들이 많은 이탈리아의 경우는 포옹을 하면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볼에 키스를 하는데 두 사람의 친숙함의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진하다고 한다. 반가움의 표시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이누이트족의 인사법도 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 중단인 불교총지종에서의 인사법은 어떻게?

우리 교의 인사법은 총기7년(1978) 4.19에 “성도합시다. 성도하십시오. 성도하겠습니다.” 등으로 반드시 성도(成道)를 권장하고 맹세하는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 ‘아침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등 안일과 먹는 위주의 인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정성(情性)과 이기(利己)에 빠졌으므로 이를 불식하고 경제발전에 상대하여 도의심(道義心)의 양양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생활과 활동의 목표를 통하여 원대하고도 차원이 높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라는 인사법 제정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의지를 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금강합장이다.

금강합장(金剛合掌)은 기명합장이라고도 하며 양손가락을 서로 모아서 오른손가락을 왼손가락위에 놓는 것을 말한다. 더 손가락을 굽히게 되면 깎지를 낀 형국(金剛縛)이 되므로 손가락을 쭉 펴다. 밀교에서 행하는 12합장중 7번째 합장으로 알려져 있다.

금강(金剛)은 산스크리어로 바즈라이며 어떤 것에도 부서질 수 없는 가장 견고하다는 뜻이며 어떤 것에도 바뀌어 지지 않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 금강합장이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몸 이대로 지금 성불의 대도를 이루

고 말리라는 굳건한 맹세의 표현인 것이다. 밀교특성중 하나인 즉신성불의 염원을 금강합장에 담았다.

예의범절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절이 있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작은 머리에 먹물 승복을 입고 있었기에 누가 봐도 스님인 것을 알수 있었다. 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주인 아주머니가 스님을 보고 ‘아줌마’ 하며 불려 세우더라.

매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 ‘뽕거 불’ 얘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의 고위 관리와의 만찬 식사에서 손을 댔으라고 나온 물을 중국 관리가 마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가 무안하지 않도록 자신도 따라 마셨다는 일화다. 앞의 얘기 와 참 대조적이다.

예의범절은 언어와 같은 것으로 일정한 생활권에 따라 쓰이는 말이 다르듯이 예의도 일정한 여건 아래에서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예의란 나의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 남에게 보이는 것이지 마음속의 깊은 내면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처신하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제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행인 것이다. 고운 미소 상냥한 말 한마디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갖는 기본적 도리다.

부처님 법을 신행하는 불자로, 중생으로서 매너(manner)가 좋은 사람은 바로 눈에만 보이는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마음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이상, 예의범절의 의미와 불교총지종의 인사법인 금강합장을 설명했다. 성직자나 도반을 만나면 상호간에 ‘성도합시다’로 인사하는 깊은 뜻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도현정사
중국불교옛보기 ⑦

기구한 운명 속에서 천재적인 자질을 이국땅에서 펼쳐야 했던 삶...

자신하나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동(東)으로 간 푸른 눈의 승려

중국에서 천 수백 년을 걸쳐 수많은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은 거의 7,000여권에 이르고 번역가도 200여명이 넘는다. 그중에 가장 뛰어나고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역경가는 단연 5세기 초의 구마라집과 7세기 중엽의 현장이다. 그 둘은 중국 역경사의 이대역성(二大譯聖)이라고 칭하는데 현장은 75종 1,335권을 번역하여 번역 양으로는 가장 많지만 중국, 한국, 일본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경가는 구마라집이다. 구마라집이야말로 중국 불교사에서 영원히 그 빛이 꺼지지 않는 인물이며 그의 도래는 실로 중국불교에서 불 때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가 번역한 역경문(譯經文)의 완비(完備)와 번역어의 유창함은 기존의 역경 방법에 일대 전진을 가져왔고 불교교학은 그로 인해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에 그의 명성은 자자해졌으며 후진(後秦)의 왕 요흥(姚興)은 그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결혼까지 강제로 시켰고 북위(北魏)의 효문제제는 그의 자손을 찾아내어 벼슬을 주었을 정도였다.

구마라집은 구자국 출신으로 7세에 출

가하여 어머니와 함께 서역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하였는데 겨우 열한 살의 나이로 외도들과 토론하여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전해질 정도로 신동이었다.

그가 계를 받은 20세에 이미 그의 명성은 멀리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은 소문을 듣고 여광(呂光)에게 명하여 구자국을 토벌하고 구마라집을 데려오게 하였다. 여광은 구자국을 쳐서 구마라집을 데려가던 도중 전진이 멸망하고 후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장(高昌)에 머물면서 후량(後凉)을 세웠다. 이리하여 구마라집은 여기서 16여년을 머물다가 후진의 요흥에 의해 비로소 장안에 오게 되었다. 요흥은 구마라집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며 국사(國師)로서 예우하며 서명각(西明閣), 소요원(逍遙園)을 하사하여 역경장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그는 장안에서 12년 동안 역경에 종사한 후 70세(413)를 일기로 임직하였다.

그가 중국 역경사에 남긴 위대한 공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특히 종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역경장이던 것이 국가



적 사업으로서 시도된 것도 구마라집이 처음이며 구마라집이 구사한 번역어의 적절함과 유창하고도 정확한 예전의 번역방법을 일신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의 번역 경전은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서는 35부 294권이라고 하고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서는 74부 384권이라 되는데 어찌되었든 300권이상의 대번역 사업을 완수했으며 이 경전들이 후세 불교교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같은 대승론부들이 구마라집에 의해 처음으로 중국에 전

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삼론종, 성실종의 기초가 되었다. 반야경(般若經)을 포함한 많은 불교 경전을 불교 본연의 뜻에 맞고 바르게 번역하면서 당시까지 중국에서 유행하던 격의불교(格義佛敎)의 폐단이 비로소 극복되었다. 또한 법화경 아미타경의 번역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는 유명한 문구도 구마라집에 의해 나온 것이다. 신역(新譯)이라 불린 당(唐) 현장(玄奘)의 번역에 대해 구마라집의 번역은 구역(舊譯)이라 불리며 현재까지도 존중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42. 총섭천비수(總攝千臂手) 진언



다나타 바로기제 새바라야 살바도따 오하야미 사바하

만약 삼천대천세계의 원적과 마구니를 항복받으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밀교유물

보물 제958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慶州 祈林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소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기림사
시 대 : 조선시대



▲ 삼불좌상 중심에 있는 비로자나불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승려 광유가 창건하여 임정사(林井寺)라 부르던 것을 원효대사가 기림사로 고쳐 부르기 시작하였다. 기림사 대정광전에 모셔진 불상인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향나무로 틀을 만든 뒤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만든 것이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좌우에 약사(藥師)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협시로 배치한 형태이다. 근엄하면서도 경계된 얼굴, 양감이 풍부하지 않은 신체 표현, 배부분의 띠로 묶은 옷 등에서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사/원/탐/방

충절의 고장 진,주 화음사



옴마니반메훔 진언소리로 화합하는 화음사(和音寺)



▲ 불교충지증 화음사 약도

절 앞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엔 바로 축석루와 진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주택가로 보이는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서면 바로 그 곳에, 겨울 햇살을 따뜻하게 받고 있는 화음사(和音寺)가 있다. 소리로서 화합하는 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 밖으로 염송 외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를 넘어 대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왼쪽의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운 미소로 불자들을 환영한다.

오래 전, 진주에서 부산 정각사까지 자성일을 지키러 가는 보살님이 있었다. 신유생 강판례 보살님이었는데, 진주에 절을 하나 내어주면 서원당을 가득 채웠다고 호언장담 하였고, 그 심신 굳은 발원으로 중앙시장 2층에 선지서원당을 개설하였다. 오늘 날 화음사의 시작이다. 현재도 강판례 보살의 가족은 매일 화음사에 나오고 부모에서 자녀로 가족 제도가 이어져 가고 있다.

월초 회향일인 11월 5일 화음사 지주연 보살님의 손자이며, 동시에 이귀선 보살님의 외손자인 김나원 군의 첫돌이였다.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는 기념품을 모두에게 보시공양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수연 전수는 공식시간 전에 불공을 하며 김나원 어린 불자님의 첫돌을 축하하는 축원불공을 올렸다. 화음사 최연소

불자인 김나원 군이 건강하게 자라길 서원했다.

마이크를 통해 올리는 록경 정사 목소리 위로 맑고 카랑카랑한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바로 올해 9살, 주악초등학교를 다니는 백주희 어린 불자의 목소리다. 주희양은 줄린 듯 연신 눈을 부비고 하품을 하지만, 왼손으로 굳게 왼 금강권을 쥔다 다부져 왼쪽 무릎 위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고사리 같은 오른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작은 입에선 ‘옴마니반메훔’하는 소리로 멈추지 않는다.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는 표정도 꽤나 진지하다. 30여 분의 불공 시간이 9살 아이 에겐 지루할 법도 한데 주희 양은 굳건히 염송을 해낸다. 백주희 양은 “자성일마다 항상 온다고는 못 하지만, 자주 오려고 노력해요. 또, 늘 가족이 잘 되길 바라며 불공을 해요. 부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어린 불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화음사 헌공불사를 세 번이나 지켜보신 보살님이 있다. 바로 신정회장 강순란 보살이다. 입교한지 33년째로, 각자님께서 몸이 편지 않아 다니게 되었는데 현재는 건강하다고 한다. 절에 다니며 가장 재미난 시간을 묻으니 “설법 시간이 아주 유익합니다. 절에 다니지 오래지만 중조법설집은 혼자 힘으로 읽어내기

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설법 시간마다 전수님께서 설명해주시면 알아듣기 쉬워 경전을 읽어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 초대 주교로 있었던 정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하셨다. “초창기에 틀을 잘 잡아놨습니다. 그 기틀이 아직까지 이어져 화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기쁜 얼굴로 초대 주교를 회고하였다.

매년 10월 1일부터 둘째 주 일요일까지, 남강 유등축제가 열린다.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 진주 남강 유등은 군사신호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의 도하작전을 저지하는 전설로, 가족에게 인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두루 사용되었다. 1593년 6월, 왜군에 의해 진주성이 적의 손에 떨어지는 통탄의 ‘계사순의’가 일어났다. 그 후로는 오직 한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와 겨레를 보전하고, 태산보다 큰 목숨을 바쳐 의롭게 순절한 병사들과 시민의 매운 열과 땀을 기리는 행사로 변화했다. 그 행사가 세세연연 변변히 이어져 오늘의 진주남강 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다.

화음사는 축제가 열리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축제가 보름이나 이어졌는데, 대부분의 축제가

업 소멸하는 마음으로 청소합시다. 내 마음을 닦는 수행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듯, 물리는 인원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택 골목마다 늘 소란하다. 화음사는 유아나 노인을 동반한 차량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개방하였고, 내년도 역시 개방할 예정이다.

자성일이 아닌 매주 수요일에도 화음사는 시골벽적이다. 바로 ‘화음사 대청소 날’이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조를 짜서 진행을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조를 옮기려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많은 보살님들이 몸 보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환희한 마음으로 승속이 일체되어 동참한다.

청소에 참여한 보살님이 말씀하시길 “업 소멸하는 마음으로 청소합니다. 내 마음을 닦는 행위와 다르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굳이 청소 할 곳을 따로 나누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레 본인의 일자리를 찾아간다. 허리가 아픈 보살님은 창문턱을 닦아내고, 무릎이 아픈 보살님은 앉아서 창문 아래를, 키가 큰 보살님은 창문 위쪽까지 닦아낸다. 다 같이 청소하는 시간이 끝나면 공양도 이루어진다. 한 보살님은 “청소가 끝나고 먹는 공양은 평소엔 먹는 공양보다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라고 전했다. 매주 수요일 마다 십여 명이 ‘자발적’으로 오신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 부듯할 일이다.

현재 화음사의 스승은 록경 정사와 법수연 전수이다. 단 한 분의 보살님이 계시더라도, 아니 비어있는 서원당 일지라도 반드시 공식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역대 스승님들의 말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리로 화합한다는 뜻에 참으로 알맞은 구전전승이다. 록경 정사와 법수연 전수는 오랜 시간 화음사를 이어온 스승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주교: 록경 정사

전화: 055-755-4697
주소: 경남 진주시 강남로 301
번길 8 (망경동 9-3)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권력의 상징

권력이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11)

물리적 강제력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조그마한 직책이라도 맡게 되거나 작은 감투를 쓰게 되면 힘 자랑을 하려고 든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상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물리적 강제력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권력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독불장군식의 독재성과 배타성이 배어 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맞본 사람은 더욱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공통점이 있다. 부릴수록 더 부리고 싶고 더욱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지는 것이 권력이다. 그 권력욕은 장기집권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37년간 장기집권을 하다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문제의 발단은 자기 부인에게 권력을 세습하려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의회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

게 되자 스스로 사임하므로써 권력의 세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듯 권력을 세습하려는 욕심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존 에머리크 에드워드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역설했다. 장기집권은 절대 권력을 양산하고 절대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며 심한 악취를 풍기기도 한다. 권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력욕을 지닌 지도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독재자로 변신한 사례들이 많다. 권력을 쥐었을 때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링컨은 '그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쥐 보라.'고 말했다. 작은 직책이나 감투를 쥐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본성이 겉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본성이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부(富)와 권력의 힘을 갖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독재자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였든가, 이와 비슷한 비유로서 '완장을 찻

다는 말이 있다. 완장을 차면 웬지 모르게 누군가를 강제하고 깊은 충동이 생기며 있던 권력마저도 부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안하무인격이 된다. 완장 찻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 말이다.

완장을 차거나 감투를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권력을 드러내게 된다. 그 권력은 또한 독재로 변하게 되어,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적대시한다. 그러나 권력은 중국에 권력을 부리는 자신을 스스로 몰락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권력이란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무상한 것이다.

대통령의 상징, 봉황과 무궁화

한편으로 이러한 권력을 인간세상에서는 도형이나 문양 등으로 곧잘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은 봉황과 무궁화다.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서 그러한 문양을 보게 된다.

무궁화는 중국에서 예전부터 군자(君子)의 기상을 지닌 꽃이라 여겼고 서양

에서는 사론의 장미로 불리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단(神壇) 둘레에 주로 심었으며, 이를 신성시 하였다. 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사용된 것은 신라시대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신라 효공왕 1년에 당나라 광종에게 보낸 국서에 신라를 근화지향(菊花之鄉)이라 하여 무궁화의 나라라고 지칭하였다. 이 국서는 최치원이 작성한 것으로 『최문창후문집』에 전해지고 있다. 또 화랑의 원조인 국자랑은 두건에 무궁화를 꽂고 다녔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한 사람의 모자에 무궁화를 꽂아 권력을 상징하였다.

봉황(鳳凰)은 동아시아에서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 그려진 봉황은 개벽을 상징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상(聖上)을 나타낸다. 즉 나라의 임금을 상징한다. 조선시대에는 봉황의 생김새와 행동거지가 임금이 지나야 할 덕목이라 여겨서 임금의 상징으로 삼았다. 오늘에 이르러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고 상징이나 상패, 휘장, 헌복 등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의 권능(權能)은 세간의 권력과 거리가 멀다.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며, 성불을 나타낸다. 밀교에서 상징은 삼매야형으로 표현된다.

이렇듯 세간에는 권력의 상징물이 있지만, 불교의 상징물은 권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권력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불교의 상징물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주로 나타낸다. 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초기불교에는 족적(足跡)과 수레바퀴, 연꽃, 등근 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며,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부처님이 등장하고 상(像)으로도 모셔졌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불 등 수많은 불상(佛像)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불상에는 세간적인 권력을 찾아 볼 수 없다. 완장이나 감투가 없으며 그로인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부처님의 공능(功能)과 역할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 거기에는 중생을 위한 본원(本願)이 세워져 있다. 부처님의 공능과 본원의 상징은 불상이외에도 칼, 화살, 정진, 구슬, 연꽃, 염주, 손모양, 진언, 만다라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밀교에서는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 한다. 부처님과 일체가 되는 문양(紋樣)이나 지물(持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삼매야형을 통해 중생은 부처와 하나가 된다.

밀교에서 수행은 삼매야를 이루는 것을 구경으로 한다. 이 삼매야는 상응(相應)과 일여(一如)를 의미한다.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삼매야는 권력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데 본뜻이 있다. 완장이나 감투가 목적이 아니며 권력을 쫓지도 않는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 삼밀을 수행방편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진언과 결인은 부처되기 위한 상징이 되고 있다. 진언과 결인 등의 삼밀은 감투나 완장 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는다. 오직 자리가 타가 있을 뿐이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신화와 인간의 육체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반야, 방편 수행도의 극치”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와 서남아시아 지역을 비교할 때 양 지역은 평면적으로 동일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한다. 고대로부터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침략할 때 양 지역의 문화적 충돌과 융합은 지리적 여건 상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기 전 과거엔 가장 이질적인 양 종교가 인도에 공존한 시절이 있었다. 그 하나는 신본주의와 율법에 의지한 종교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지혜와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이다. 두 종교가 보이는 이질적 소재들은 다양

하지만 인간의 육체에 대한 평가는 특히 큰 차이가 난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종교는 육신을 부정해왔다. 인간의 육신은 불완전하며 욕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 육신에 대한 자학과 회멸을 성스런 행위로 치

부하는 사례도 흔히 존재한다. 인도인들은 신들을 가정한 종교를 발전시켰다. 인도인들은 수학과 논리학에 밝은 민족이다. 만약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대해 더러움과 욕망의 굴레를 씌우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창조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인도인들은 인간의 육신에 대해 신의 작품으로서 최대한의 찬사를 보내지만 인간의 무지인 마या가 육신의 신성함을 방해한다는 논리적 해명을 보인다.

반면 샛족의 종교는 인간육신을 여전히 부정하고, 율법과 신화를 통해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붓다는 연기와 무아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인간의 육신과 관련한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보면 무명과 육신의 재탄생, 업과 윤회설이 대표적 예이다. 초기교설은 업의 결과로서 윤회와 인간의 무상한 육신을 고(苦)의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붓

다는 무명과 모든 윤회의 현상에 대해서 달마(跋耆) 선언하고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판단을 중지하였다. 때문에 제자들은 달마로부터 무명의 정신현상을 구분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 부파불교시대에 아비달마의 학파들이 성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초기불교의 교설만으로도 인간의 육신은 달마일 뿐이며 육신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의 육신을 욕망이나, 집착, 이기의 마음으로 불 뿐이다. 부파불교시대에 유행한 불전문화에 보살은 윤회를 선택하여 중생세간에 전생(轉生)한다고 설하였다.

인도 후기밀교의 '비밀집회판뜨라'는 만다라를 통해 인간의 지도를 완성하였다. 인간이 지닌 근본원리와 정신, 육신의 모든 요소가 비밀집회판뜨라 만다라를 통해 구현되어 있다. 만다라에는 붓다가 법신으로부터 수용신, 육신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원리가 설계진다.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육신은 비밀집회판뜨라 만다라의 또 다른 설계라 말할 수 있다. 만다라의 본존은 아록금강이다. 그의 용모는 자비롭지 않고 인간의 감각과 유희, 욕망을 적극적으로 정복한 분노존이다. 그 분노는 지혜로부터 나오며 공성의 일체 지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비밀집회판뜨라의 만다라는 인간궁정에 대한 최고의 종교적 산물이다.

인간의 종교역사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억압한 시간을 보여준다. 서구의 경우 인간이 육신에 부여된 죄악과 해방의 철학을 제시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석가모니붓다는 달마의 선언을 통해 인간의 육신은 무명과 근본적으로 무관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천여 년이 지난 후 비밀집회판뜨라의 탄생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도 법신으로서 우주본성에 대한 찬사와 긍정의 철학을 만다라를 통해 극적으로 완성시켰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담금주 전시장

대표 정 이 석 (화음사교도)

경남 진주시 도동로 20
T. 055) 752-4858 / F. 055)755-0026
P. 010-5011-0506
E. ddh4858@naver.com
www.hasu5.com



도라지와 하수오를 사랑하는 사람들

검색

동해중 소식

동해중 어머니 독서회 문학기행
통영 한려수도 기행을 통해 문학의 의미와 정서 순화 기회 가져



▲ 어머니 독서회 문학기행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 어머니 독서회에서는 회장인 김미선(3년 박관 우모)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통영 일대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기회를 가졌다.

평소 동해책마루(도서관)에서 독서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과 인문학 관련 특강, 진로 및 자녀지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자녀와의 대화 기법, 독서 토론, 문학인 초청 강연회 등으로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문학탐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문학 기행은 문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학인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직접 작품의 배경이 된 작품 탄생지를 접하면서 마음의 정화는 물론 힐링의 기회를 가지게 된 계기도 되었다.

독서문학 기행에서는 통영 벽화와 그림의 나라 동피랑 마을을 견학도 하고 '깃발'의 시인 청마 유치환 문학관과 '꽃'의 시인 김춘수 문학관을 관람

하고 '토지'의 작가 박경리 문학관을 거쳐 오면서 당대를 풍미했던 문학인과의 만남과 현지 문학해설사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다시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과 문학소녀의 감성을 다시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고 무척 감사해 하기도 했다.

특히 운영진의 노력으로 본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즉석 추첨 행사, 한려수도 케이블카 탑승은 이번 행사를 더욱 흥미있게 한 축제에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해 했다.

앞으로도 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부모와 학교간의 소통과 나눔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왔다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환자는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

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예정돼 있지만, 전문 상담인력 부족 및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연명의료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생명윤리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연명의료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달 말 공식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02shlove@naver.com

복지부, 15일부터 중증 장애인 연금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연금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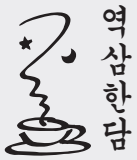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법위를 확대했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02shlove@naver.com



시대에 역행하는 사찰안내 표지판 철거

- 철거된 도로표지판 68건 중 타종교 단 2건
- 현행 도로표지 관리지침 현실 맞게 개정해야

불교계의 강력한 항의로 고속도로 표지판서 사찰 안내 명칭 삭제 계획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한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총무원장 스님 말에 공감하며 “역사적으로 제대로 알릴 부분은 알려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사찰 표지판은 모두 195개였다. 이중 올해 들어 보조표지판 68건이 전국고속도로에서 사라졌다. 2003년 이후 설치된 사찰 안내 표지판 108 건에 대해 올해부터 철거를 시작한 한국고속도로공사는 현재까지 보조표지 68건을 삭제하고, 향후 내년에는 본표지 40건에 대해 철거를 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교계 반발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올해 철거된 보조표지판은 경부선 김천 추풍령 구간 직지사 관련 8건과 도동 구간 동화사 2건, 노로 범어사 1건으로 11건이다.

또한 영동선은 용인 구간 와우정사 2건, 양지구간 와우정사 3건으로 총 5건이다. 철거 표지판 수가 가장 많은 중앙선은 모두 25건으로 신림구간 범홍사 3건, 제천구간 범홍사 3건, 북단양과 단양구간 구인사 각 3건과 1건, 풍기구간 부석사 2건, 가산구간 도리사 6건, 남안동구간 고운사 3건, 남제천 구간 구인사 2건으로 총 23건이 사찰안내 표지판이며, 단 두 건만이 천주교 성지이다. 다음으로 청주 영덕선 속리산 구간 범주사가 2건, 청송구간 대전사가 2건, 청송구간 고운사 6건, 보은구간 범주사 2건으로 총 12건이다. 이외에도 익산 장수선 진안 금당사와 탑사 2건 당진대전선 고덕구간 수덕사 2건, 대구포항선 은혜사 6건, 중부내륙선 선산구간 도리사 5건 등 총 15건이다. 이처럼 올해 사라진 68개 전국고속도로 보조표지판 중 천주교 성지 2건을 제외한 66건이 모두 사찰 보조표지판인 셈이다.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항상 만나는 이정표는 지역 명찰로 가는 표지판이다. 합천하면 해인사, 속리산하면 범주사, 김천하면 직지사가 연상되듯이 지역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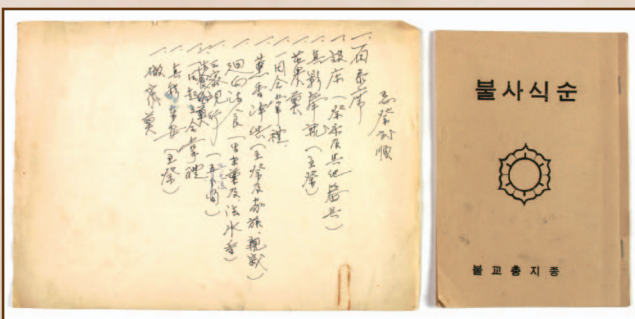
화사 사찰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사찰로 가는 길을 알려주던 표지판이 없어질 상황이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측의 주장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이다. 현재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사적지 등을 명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인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는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소위 위락시설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지만, 공공재며 문화재인 사찰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부처의 물리적 한 문화재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물론 불교계에도 책임은 없지 않다. 10년 전 지침 개정이 이뤄졌을 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었지만, 당시에는 전혀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명찰들은 단순히 정보문화재의 차원을 넘어선 공공재이다. 그중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국보급 유물도 있다. 그래서 사찰 표지판을 없애는 일은 우리나라만의 자랑과 알뜰거리를 국내인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차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합리한 법과 조항이 있으면 고쳐서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과거의 인습에만 매달려 자랑스런 한국의 전통 사찰문화유산이 가려지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유산을 알리고 지원함을 작금의 현실에서, 그것마저 막을 만들어 가려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상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역시 지침 개정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토부는 2008년 ‘알고가’ 사태를 통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제2의 알고가 사태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일도 자행하지 않길 바란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불교총지중 옛자료 수집



종단의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총지중 통리원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인쇄물, 사진, 유품, 물건, 용품
총기 1년 ~ 총기 20년 발행도서

| 전화: 02-552-108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불교총지중 통리원

이달의 수인사 사찰음식

박금화 보살

얇빈 요리를 소개합니다. 원산지가 중남미인 뿌리채소이며, 멕시코 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얇빈은 배와 무를 섞어 놓은 맛, 과일 같은 맛이며 변비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



1. 얇빈깍두기 김치

얇빈을 깍두기로 썰어 뉴슈가와 소금으로 절인다 10분정도 절인다.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데 오늘을 맛간장으로 간 했어요 고추가루, 통지가루, 쪽파넣고 버무린다.



2. 상추장떡

상추, 얇빈, 당근, 고추, 고구마 채썰어 된장과 고추장 같은 비율로 넣고 메밀가루와 녹두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고소한 참기름도 첨가하면 더 맛있다.



3. 들깨 샐러드

플레인요거트에 들깨가루와 식초도 조금 넣어 소스 만든다.

생고구마, 파프리카, 얇빈, 어린잎, 당근 채썰어준비하고 브로커리는 데쳐서 작게 썰어 접시에 담아낸 그위에 소스를 끼얹는다.



4. 얇빈덮밥 일본식

육수물에 양파, 표 쇠고기, 당근을 채썰어 끓일때 넣고 소금, 간장 반 반으로 간을 한다.

한번 끓고 나면 얇빈을 넣고 계란을 풀어 돌려 넣고 짓지 않고 불을 끈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⑨

梅蘭菊竹



덕광(실보사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수상

영 / 화 / 감 / 상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약속해요, 언젠가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모든 것을 초월한 오직 두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비탄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네팔의 온게이 린포체가 한국에 와서 설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연으로 우연히 보게 된 린포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보고 흘린 눈물이었다. 지난 9월에 개봉한 영화라는데 여태 제목도 못들어 왔다니... 이런 좋은 불교 영화를 불교 매체에서도 소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라고 믿고 찾아봤더니 있긴 있었다. 하지만 아주 조금. 있는 등 마는 등 흘려보냈다. 이런 좋은 작품을 좀 더 크게 부각하고 알려주는 노력을 불교계에서 한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불교영화나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지만 과연... 그래서 나라도 힘을 좀 보태고자 이렇게 소개한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영어 제목이 <Becoming who I was>이다. 린포체로서 전생의 훌륭한 나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것 같다. 영화도 어린 린포체가 점점 커가면서 의젓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린포체’는 중생 제도를 위하여 몸을 바쳐 다시 태어난 티베트 불가의 고승을 말하며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린포체의 정식 이름은 빠드마 양푸이다. 양푸는 여섯 살에 라다크불교 협회로부터 린포체로 인정받았다. 린포체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전생의 기억에 대한 검증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푸도 티베트에서의 전생의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어리지만 린포체로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승양되지만 전생의 사원에서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라다크 사원에서 추방당하는 규칙이 있다. 그렇지만 라다크가 어떤 곳인가? 1949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여 점령한 이후 박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티베트 불자들이 피난 와서 머무르는 인도 서북부의 척박한 곳이다. 규칙에 의해 사원에서 내쫓긴 양푸의 곁에는 스승이며 보호자이고 친구인 70을 바라보는 우르간이가 있다. 이들은 오두막집에 살면서 저 멀리 티베트에서 제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국경이 막혀버린 지금은 찾아올 수가 없다. 영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히말라야 산맥의 한 자락에 자리한 시골마을에서 9살 된 양푸와 우르간 스님은 어려운 삶을 이어간다.

양푸는 시골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만 가끔은 친구들에게 집쟁이로 놀림을 받기도 하고 스승인 우르간은 린포체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나쁜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 둘의 서로에 대한 믿음은 실로 눈물겹다. 조금씩 전생의 기억이 흐려지게 된 양푸는 자기의 전생 고향이었던 티베트 캄을 향해 직접 떠나기로 결심하고, 스승인 우르간과 함께 3000킬로미터가 넘는 내팔 쪽을 향하여 간다. 배낭 하나씩 둘러메고 어느 날은 작렬하는 햇살 아래, 어느 날은 빗속에서, 또 어느 날은 눈보라 속에서 걷다가 지치면 차를 얻어 타기도 하면서 먼 길을 떠난다.

“스승님과 함께 오지 못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당신을 돕는 게 제 삶이죠” 서로의 교감 속에 진심을 나누는 양푸와 우르간의 모습은 천만마디 말보다도 불교의 진수를 더 잘 전해준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실로 아름다운 기록영화이다.

제작진이 무려 9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아낸 라다크의 작은 시골 마을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의 산맥, 그리고 티베트 시집의 사원 등의 풍광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한다. 티베트 국경에 가까이 와 눈보라를 헤치며 산 중턱에 오른 양푸와 우르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돈도 안되는 이 다큐를 찍기 위해 9년이나 이들과 함께 고생했을 문창용 감독과 전진 씨에게....

서로에게 따뜻한 교감을 전하며 진심을 나누는 ‘양푸’와 ‘우르간’의 모습은 세대는 물론 문화까지 초월한 보편적인 감동과 큰 울림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설계



서소동 자동차전시장 설계



연지동 오피스텔 설계

時 空 間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간

21세기 미래 지향적 건축공간 창조

첨단기술의 적극수용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

- 계획(Planning)
- 건축설계&인테리어(Design&Interior)
- 건축감리(Surveillance Plan)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12길 48. 2F TEL) 02-596-7627 대표 서정환 010-5207-0659

동지(冬至)불공

삼밀사 주교 남해 정사

동지는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으며 음력 11월 중, 양력 12월 22일경이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270°위치에 있을 때이다.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고대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중국 주나라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 날을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역경의 복괘를 11월, 즉 자월이라 해서 동짓달부터 시작한 것도 동지와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라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 설’이라 하였다고 한다.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 가는 작은 설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궁공씨의 바보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 귀신이 되었는데 역질 귀신이 붉은 팔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동짓날 붉은 팔죽을 쑤어서 그를 물리친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그 유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팔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는 말을 하고 있다.

동짓날의 팔죽은 시절식의 하나이면서 신앙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팔죽에는 축귀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으니, 집안의 여러 곳에 놓는 것은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모조리 쫓아내기 위한 것이고, 사당에 놓는 것은 천신의 뜻이 있다.

팔은 색이 붉어 양색이므로 음귀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며 민속적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물에 팔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팔죽을 쑤어 상가에 보내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다.

신라와 고려에서는 동지를 전후하여 국가적 종교 행사인 ‘팔관회’를 지냈는데, 이를 ‘중동팔관회’라고 했다. <고려사>에는 “동지를 전후해 팔관회가 베풀어졌다”고 전한다. 또한 <동문선>에 실린 고려 때 문신 이인로의 ‘팔관일호종’이란 시에 보면 “오봉루 높은 다락에 보불자리 펴노니, 아름다운 절기는 마침 일양의 하늘일세, 계향은 이미 삼천세계를 두루하였고, 경조는 웅당 팔백년을 넘으리라”라고 읊고 있다.

동짓날에 천지신과 조상의 영(靈)을 제사하고 신하의 조하(朝賀)를 받고 군신의 연례를 받기도 하였는데 불교에서도 24 절기의 하나인 동지를 불공의례로 수용하면서 민간신앙의 요소도 흡수하게 되었다. 동지 불공은 민간의 세시 풍속과 불교 의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동지 불공은 한 해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충구영신의 의미가 강조된다. 불공을 마친 후에는 팔죽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며, 한 해 동안의 액을 제거하기 위해 입고 있던 옷가지를 불에 태우는 소대의식도 행한다.

사원에서도 동지에 불공을 올리는데, 동지 불공을 할 때는 팔죽을 쑤어 불전에 공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는 불공으로 올린 팔죽은 의례에 의하여 성화되고 염력이 깃들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지불공을 올리면 재난, 기근, 질병의 소 삼재와 수재, 풍채, 화재의 대 삼재가 소멸된다고 믿는다.

불공이 끝나면 교도들은 다음 해 달력을 받아 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팔죽을 얻어가 가족과 이웃이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한다.

로버트 D. 엔라이트의 ‘용서는 선택이다’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성취와 목표를 따라 빠르게만 달려온 요즘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을 만났다. “학생들에게 과제로 어떤 책을 읽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재의 책을 살피는 중에 대학교 심리학 수업에 과제로 읽은 로버트 D. 엔라이트의 ‘용서는 선택이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속도와 성취, 결과만을 강조하는 요즘은 용서라는 단어는 생소하고 의미없는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비, 용서, 사랑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용서는 깊이 새겨보아야 할 심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책을 읽으면서, 내 감정의 구석에 위치하며 있고 있었던 용서라는 단어가 내 삶 전반에 분노, 무관심, 체념, 우울, 스트레스, 혼돈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때론 반대로 내 삶의 동기로 작용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올바른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관한 책은 나에게 대한 인식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였으며, 용서하기, 용서 받기, 화해에 이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선물해주었다.

본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참된 용서와 가짜 용서에 대한 것이다. 용서에 관한 다양한 오해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행동한다. 용서는 미덕이며 용서를 하지 않으면 화병이 생기고, 용서는 도덕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며, 가해자에게 오직 용서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선택

밖에 없다는 것,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한이라는 것, 용서는 무조건적이라는 것, 마음을 열면 용서를 할 수 있고, 자기용서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들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종의 용서라고 생각했던 잊어버리기, 정당화하기, 흥분 가라앉히기, 가짜용서 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서(이미 일어난 것을 수용하는 그 이상의 것, 분노 중지를 초월하는 것, 상대방에게 중립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것,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이상의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다음은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용서는 정서적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실현해 가는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또한 이 책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 이념, 지역, 국가 차이에 기인한 분노가 사회, 국가간 폭력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용서의 의미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은 물론 사회 및 국가 간에도 적용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2부에서는 용서의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용서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노 인정하기, 분노의 깊이에 직면하기, 용서하기로 결심하기,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기, 긍정적인 감정, 사고, 행동 만들기, 이러한 용서 과정을 통해 감정적 감옥에서 해방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해자를 용서

하기 등의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연구들이 소개되어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훨씬 용이하였다.

3부에서는 용서에 관한 심화과정의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자녀에게 용서를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과 부모의 용서에 대한 지각 차이, 이야기를 통한 자녀의 용서 및 도덕성 개발 방법,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용서 가르치기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한편, 개인적으로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았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용서 구하기의 내용은 관점의 변화 측면에서 내게 큰 의미가 있었으며, 용서하기, 용서받기가 신뢰, 대화, 긍정적 회복의 과정을 거쳐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용서는 미덕이며, 선택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는 감사하기, 향유하기, 인생 의미찾기 프로그램, 성격 강점 찾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용서하기 프로그램을 항상 포함시킨다. 용서하기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나 사건을 찾아 자신을 위해 의미있는 용서를 하게하는 것이다. 또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못한 대상을 찾아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서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부정정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책을 통해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와 의미있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용서하기 활동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어쩌다 한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떠올리면 이 책에서 제시된 용서하기와 용서받기의 방법들을 일상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한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국경매출품 ‘옥천사 나한상’ 돌아온다

경매사와 원만한 협상으로 도난불교문화재 제자리로



▲ 옥천사 나한상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은 미국 경매시장에 출품되어 경매가 이루어질 뻔했던

‘옥천사 나한상’이 도난 불교문화재라는 사실을 근거로 경매를 철회시키고, 해당 경매사와도 원만한 협상을 마무리해 11월 중으로 무사히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로 돌아오는 나한상은 경남 고성군의 옥천사 나한전에 모셔졌던 16존의 나한상 중 하나로, 1988년 1월에 7존이 한꺼번에 같이 도난당한 이후 약 3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5번째 존이다.

나한은 아라한(阿羅漢)의 준말로, 온갖 번뇌를 끊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을만한 공덕을 갖춘 자를 말한다.

옥천사 나한상은 1988년 1월 30일 7존이 도난당하였고, 이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존씩 총 4존이 회수되었다. 환수 예정인 이번 나한상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3존 중 하나이며, 도난된 7존의 나한상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발견된 것이다.

나한은 아라한(阿羅漢)의 준말로, 온갖 번뇌를 끊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을만한 공덕을 갖춘 자를 말한다. 나한은 인간들의 소원을 속히 성취시켜 주는 신앙대상으로 일찍부터 존송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6나한, 오백나한을 주로 나한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옥천사 나한상도 16나한 중의 한 존상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옥천사 나한상의 환수를 계기로 외국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의 도난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며, 거래되는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경매사 등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 반환을 이뤄내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충지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은 자비로써 중생을 살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나눔의 향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인선 합장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만다라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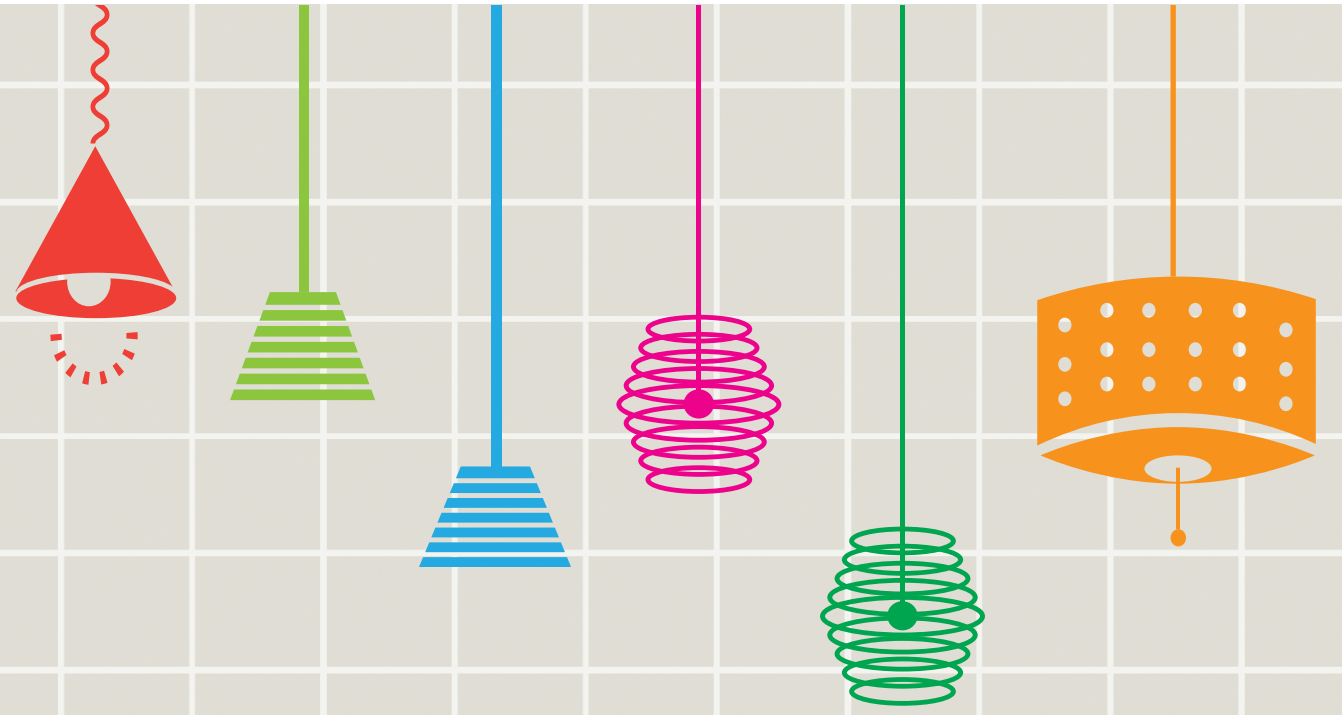
일원어린이집

잠원햇살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세종전기



전기재료·조명 도소매

강 미 정
(화음사 교도)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81-8
Tel. 055-852-7615 / 010-6255-7623

동양 365 할인 마트



장대점

반도병원 건너편

055-741-1777
055-741-5550

망경점

망경초등학교 앞
망경동사무소 건너편

055-762-7887~9

신속배달



대표 **홍춘자**
(화음사교도)

개점:오전7시 / 폐점:자정 12시



S-OIL

유천충전소

에스오일 선정
서비스 최우수 주유소

대표 **이 상 필**(화음사교도)

경남 진주시 말티고개로 69(초전동) ☎ 전화 : 055-756-5143, 010-9029-4446, 010-3588-3354